

동사 중지형 「～して」의 기능과 의미(2)

—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動作主)가

다른 경우를 중심으로 —

全成龍*

目次

1. 들어가며
 2. 나열의 경우
 3. 先行句節과 後續句節 사이에서 보이는 시간적인 관계
 - 3.1 繼起的인 경우
 - 3.2 同時的인 경우
 4. 상황절로 사용되는 경우
 5. 마치며
-

1. 들어가며

현대 일본어의 동사의 긍정 중지형에는, 소위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동사의 連用形인「～し」라는 형태와, 동사의 連用形에 접속조사「て」가 붙은「～して」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형태 중「～して」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일전에『일본문화학보 제17집』(2003·5)에서 논한 적이 있다. 이때는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 동사 중지형「～して」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논하였지만, 이 拙論은 앞의 것과 연속된 것으로서, 여기서는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動作主)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동사 중지형「～して」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앞의 拙論에서도 논한 것과 같이, 동사 중지형「～して」가 문장(文) 속에서 사용될 때 기본적으로는 동사로서의 述語性和 중지형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ムード・テンス도 文末述語와 동일하며 文末述語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동사 중지형이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동사 중지형「～して」에 의해 나타나는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서로 다르기에, 동사 중지형「～して」는 동사로서의 술어성과 중지형으로서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나열의 경우

* 청주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이것은 문자 그대로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이 단지 나열되어 있는 경우로, 그렇기 때문에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을 서로 바꾸어 넣어도 나타내고자 하는 사실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動作主)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예문과 같이 先行句節의 사항과 後續句節의 사항 사이에서 나타나는 실제의 시간적인 관계가 繼起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나열」에 해당되는 예문이 있을 것 같은데

- 太郎は東京で生まれて, 次郎は大阪で生まれたんです.

實例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이에 반해 先行句節의 사항과 後續句節의 사항 사이에서 보여지는 시간적인 관계가 同時的인 경우의 예문은 비교적 많이 보인다.

2.1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例1; エレーヌが笛を吹いて, アニーとエリカが歌い出した。(アポロンの島)

例2; そして礼がすむと先生は,

「ではみなさん、今日から勉強をはじめましょう。みなさんはちゃんとお道具をもってきましたね。では一年生の人はお習字のお手本と硯(すずり)と紙を出して、二年生と四年生の方は算術帳と雜記帳と鉛筆を出して、五年生と六年生の方は國語の本を出してください。」(風の又三郎)

2.2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이지만 그 상태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하나의 場面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물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例3; 少し行くと一けんの藁やねの家があって、その前に小さなたばこ畑がありました。

(風の又三郎)

例4; ところがどうもうるさいことは、また扉が一つありました。そしてそのわきに鏡がかかって、その下には柄(え)のついたブラシが置いてあったのです。(注文の多い料理店)

例5; 三郎はその次に立って、

「ここには熊いないから、馬をはなして置いてもいいなあ。」と言って歩きました。

しばらく行くと、みちばたの大きな榎(なら)の木の下に、縄で編んだ袋が投げ出してあって、澤山の草たばがあっちにもこっちにもころがあっていました。(風の又三郎)

그런데 동시적으로 성립하는 두 개의 사항을, 문장(文) 속에 서술하면서 나열할 때, 하나를 先行句節에, 다른 하나를 後續句節에 서술하게 되는데, 이 때 話者が 아무 것이나 먼저 서술해도 좋은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어느 쪽인가 먼저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문장(文)의 順序性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先行句節에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서술하고, 後續句節에는 「그 부분이 되는 사항」을 서술하든지(예;7), 혹은 後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사항의 「狀況」같은 것을 先行句節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예;6). 물론 두 개의 사항이 나열되는 가운데는, 그냥 단지 나열되어져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문맥상 두 개의 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서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문장(文)에 있어서의 節과 節의 구조, 문장(文)에 있어서의 節과 節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지형의 연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並合文¹⁾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중지형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그 관계를 확실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어찌 되었던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또 밝혀져야 하는 연구 테마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장면의 두 개의 상태 중 그 하나를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나타내는 경우다.

例6; リビングを、ゆっくり横切って、そっとダイニングを覗いてみる。
明りが点いていて、母が椅子に座っていた。(早春物語)

세 번째로는, 하나의 공간 속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나타내는 경우다.

例7; 空は紫色に染まって、金色のふちどりをした雲があちこちに浮かんでいる。(早春物語)

例8; 次の朝も空はよく晴れて、谷川はさらさら鳴りました。(風の又三郎)

例9; 杜子春は思わず耳を抑えて、一枚岩の上へひれ伏しました。が、すぐに目を開いて見ると、空は以前の通り晴れ渡って、向う聳(そび)えた山々の上にも、茶碗程の北斗の星が、やはりきらきら輝いています。(杜子春)

마지막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것 중에는, 다음과 같이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하나의 사물이라든지 장소의 어느 부분, 또는 어떠한 측면을 나타내며, 後續句節은 다른 부분, 또는 다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다.

例10; その善やんの小さな顔は妙に蒼白になっていて、額には汗が粒になってうかんでいた。(神の道化師)

例11; 前半、沸きに沸いたのはヤクルトベンチ、そして右翼スタンドだった。三回のビッグイニング11点。打者十四人を送り込み、池山2發で試合は決まった、ようなものだった。余裕しゃくしゃくのツバメ軍団。得点が刻まれるたびに、お祭り騒ぎで狂氣亂舞、右翼スタンドでは緑のカサが搔れて、東京音頭が響き渡った。

(資料外; ディリースポーツ)

그런데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 가운데는,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와 後續句節

1) 일본어의 「ならべあわせ文」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주어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문장(文)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문장이다. (참고 鈴木重幸『日本語文法・形態論 p.166』)

의 술어가 대조적인 것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例12: 煙草は風で、片側だけが燃えて、風下に当たる方は燃え残った。(アポロンの島)

例13: 受話器をはなしたときから、僕は不思議に飯のことばかり考えていた。

食欲はすこしもないのだが、何かを食うこと、それだけが目醒めていて、他のすべてはまだ睡っていた。(ジングルベル)

例14: 旅先の下宿で、その娘に親切にされる。すると、太郎も次郎も三郎も四郎も、サルトル派もマルクス派もキューリー派も、みんな判で捺(お)したように、その娘に戀をして結婚した。四人がそんなふうにして嫁づいて、あとには私一人だけ残った。

(若い娘)

그러나 다음 예는,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와 後續句節의 술어가 대조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例15: エレーヌが仰向けに寢て、ニコの上半身が彼女のたかい胸の横に起き上っていた。

(アポロンの島)

例16: 彼のまわりに人が集っているように感じていた。しばらくして顔を上げるとアニーとジャン・ピエールがしゃがんでいて、その後に船員が一人立っていた。(アポロンの島)

3. 先行句節과 後續句節 사이에서 보여지는 시간적인 관계

3.1 繼起的인 경우

이것은 주어(動作主)가 다른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두 개의 사항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잇달아 행해지는 경우이다.

例17: エレベーターが來て、私たちは乗った。(早春物語)

例18: 車の停る音が聞こえて、田中は振り返った。

濃いブレーの、大きな車体が、正面につけられると、ドアがさっと開いて、梶川が自ら外へ降り立った。(早春物語)

그런데, 先行句節과 後續句節 사이에서 보여지는 시간적인 관계가 繼起的인 것 가운데는, 그 관계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1.1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경우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後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사항의 원인·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로, 後續句節의 술어는 주어(動作主)의 의지에 의한 동작·상태이다.

例19: コーヒーは、とくに冷えて、私は飲むのをやめた。(早春物語)

例20; 翌朝、私は、十一時ごろ、やっと目が覺めた。
ホテルの方では、こんな若い娘が、しかも夜中に一人でやって來たというので、かなり泊めるのを滯っていたけど、料金を規定以上に前拂いして、やっと部屋へ入れてくれた。(早春物語)

例21; 「大変なのね、エリートも」
「實際ね、入社して來るといやになるよ。何だか店じまいした後のデパートみたいに、閑散としているんだ。みんな休暇取ってね。—— こっちはそれどころじゃない」
「宿命ね」
「他人(ひと)のことだと思って」
と、梶川は笑った。
「私もこの足じゃ、旅行ってわけにもいかないの」
「そうだろうね」
梶川は、少し間を置いて、言った。「—— 黙っててくれて、感謝してるよ」
(早春物語)

그러나 다음 예는,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後續句節이 나타내는 사항의 원인·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위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先行句節의 사항에 의해 저절로 발생하는 결과의 상태를, 後續句節의 술어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例22; 烈しい風と雨にぐしょぬれになりながら、二人はやっと學校へ來ました。昇降口からは行ってきますと、教室はまだいいんとしていましたが、ところどころの窓のすきまから雨がはいて、床板はまるでぎぶぎぶしていました。(風の又三郎)

例23; 熱氣がこもっているせいで、少しムツとしたが、窓を開けると、すぐに風が通って、涼しくなった。(早春物語)

例24; そんな事があつたら、大変でございます。が、そう云う中(うち)にも、罪人たちは何百となく何千となく、まっ暗な血の池の底から、うようよと這い上って、細く光っている蜘蛛の糸を、一列になりながら、せつせとのぼって參ります。今の中にどうかしなければ、糸はまん中から二つに斷れて、落ちてしまうのに違いありません。
(蜘蛛の糸)

또, 後續句節의 술어가 先行句節의 사항에 의해 야기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예도 있으며,

例25; 「—— すみません」
突然、すぐ後ろで聲がして、田中は、思わず聲を上げそうになるほどびっくりした。(早春物語)

例26; 玄關の前に戻って行きながら、田中は首を振った。(中略)
元の、所定の位置に戻ったとき、出しぬけに扉が開いて、ギョツとした。(早春物語)

이와는 반대로, 先行句節의 심리적(정신적)인 사항에 의해 야기되는 그 결과의 상태를, 後續句節의 술어가 나타내는 것도 있다.

例27; 今夜は眠ればいいがな……と浩は思った。旅行中に考え耽って、眠れない夜が續いていた。(アポロンの島)

3.1.2 前兆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앞의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것 중의, 「後續句節의 술어가, 先行句節의 사건에 의해 저절로 발생하는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의미적으로는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자연현상이, 後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때(시간)라든지, 계절이 되기 위한 前兆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例28; ダイヤの莖が干枯(ひから)びた縄のように地の上でむすぼれ出した。潮風が水平線の上から終日吹きつけて来て冬になった。(春は馬車に乗って)

例29; — 急に、陽がかげり始めて、私は一層足を早めた。

暗かりが辺りを包み始める。風が冷たくなる。空が紫色に染まって、「夜」がやって来る。

私は、彼のいるコテージの中へと、飛び込んで行った。(早春物語)

例30; そして — 學校は期末テストに入った。

もちろん、同じテストがこっちにも回って来るが、何しろ、教科書もノートも見られるのだから、楽なもんだ。もっとも、いくらいい点を取っても、成績とは見なしてくれないのである。

その最終日だった。

ともかく、もう眞夏みたいに暑い日で — 梅雨はあけて、夏に入っていた。

(早春物語)

3.1.3 先行句節과 後續句節 모두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이, 모두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3.1.2의 「前兆현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先行句節의 자연현상이 반드시 後續句節의 前兆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나열에서 보여지듯 「하나의 공간 속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많으며, 이와 같이 繼起라고 하는 시간적인 관계의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예문은 아래와 같이 있지만, 實例로서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았다.

例31; 戸を閉じて床にはいっても胸が苦しかった。また湯にはいった。湯を荒々しく掻き廻した。雨が上って、月が出た。雨に洗われた秋の夜が冴え冴えと明るんだ。

(伊豆の踊子)

3.1.4 두 개의 상태·동작 사이의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어떤 상태·동작이 행해지고 나서, 다음의 다른 상태·동작이 일어나는 사이의 그 시간대를,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나타내고 있다.

例32; 「自宅謹慎」

「あら、ずいぶん軽かったのね。良かったじゃないの」

「足のけがの分を差し引いてほしいわ」

「何を言ってるの。 — お母さんは?」

「お父さんと一緒よ。先に歸ったの。ね、お姉さん」

「なあに?」

「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こと、耳に入ってる?」

少し間があって、姉が言った。(早春物語)

例33; 「もしもし。—— あの —— 梶川さん、お願いします。—— はい」

「—— はい、梶川です」

こんな聲だったかしら? 間違いないというのに、ついそう考えてしまう。

「今日は。瞳です」

少し間があって、

「君!」

吐き出す息の音がした。(早春物語)

3.1.5 基点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에 의해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이 사물· 일 등을 선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경우이다.

例34; ~。父が在世中なれば、問いだすこともできるのですが、父がなくなって、もう、かれこれ十年にもなりますものね。いや、やっぱり神さまのお恵みでございましょう。(葉櫻と魔笛)

3.1.6 두 개의 감각· 느낌 중 그 하나를 나타내는 경우

한 사람의 주어(動作主)가 느끼는 繼起的인 두 개의 감각· 느낌 중, 그 중 하나를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나타내고 있다.

例35; サチ子は固く目を閉じた。まぶたの裏が赤くなり、山の頂上へのぼりつめてゆく。やがて頂きがきて、全身の力が抜けた。(隣の女)

例36; 枕のかわったせいか、こなれの悪い夢を見たような氣がするが、目をあけた途端に消えてしま、あとには取りとめのないだるさが残る。(幸福)

3.2 同時的인 경우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先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사항과, 後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사항 사이에서 보여지는 시간적인 관계가, 동시적인 경우의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얼마 되지 않는 예문이지만, 그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나열」과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나열」과 같이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을 자유롭게 바꾸어 넣기 어렵다는 것이다.

3.2.1 동작· 상태가 행해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사물이나 건물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後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동작· 상태가 행해지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例37;そこに略式のバーがあって、労働者達が入れ替え來て、酒を飲んでいた。

(アポロンの島)

例38; 半分焼けた大きな栗の根もとに、草で作った小さな囲いがあって、チョロチョロ赤い火が燃えて

いました。(風の又三郎)

例39; 奥に受付があって、マネキン人形みたいな笑顔の女性が座っている。(早春物語)

그러나 다음의 예도, 위와 같이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공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경우의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는 동작·상태가 행해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狀況語인 것 같다.

例40; 雪が降りてきて、吸いこむ空気が濕っぽく、ひやっこい。岩と這松の世界は底ぶかく沈まりかえっていて、私は我知らず身体をゆすっていた。(岩尾根にて)

3.2.2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전체의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며, 그 구체적인 예(내용)를 後續句節이 나타내고 있다

例41; KはC中佐の家でまったく家族並みの扱いをうけているらしく、二階で彼の書籍を荷作りをして
いたが、

「きょうは家の連中は熱海へ行っちゃってるんだ。よかったら泊まって行けよ。おれのポークチョップの味知らんだろう」

と、日焼けした黒い顔に白い齒をみせながら、笑った。半年ほどみないうちに彼はますますガッシリと肥って尻が張りさけそうになっている。(劍舞)

例42; カナ子は紺色のズボンに白いジャケットを着ているが、雪國の娘たちがたいていそうであるように、秋のころに較べるといちだと肉がついて、頬などは赤ぐろいつやを放って光っている。(若い娘)

그런데 다음의 예도,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위와 같이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의 예문과 매우 비슷하지만, 위와 조금 다른 점은, 다음 예는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전체의 상태라든지 모습, 또는 전체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後續句節이 그 일부분의 특징이라든지 일부분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例43; 男はヤッケの首元の紐をゆるめ、黙念と傍らを見つめている。厚ぼったい幅廣いズボンをはいて、膝の部分がかなり痛んでいる。(岩尾根にて)

4. 상황절로 사용되는 경우

이것은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가, 後續句節에 의해 나타나는 사건의, 시간의 상황절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先行句節의 동사 중지형 「~して」는, 並合文의 先行句節이 아니라, 單文의 문장(文) 부분으로 변해간다

例44; 清吉とキヨ子が結婚してから一年半経った。そのころになって、朋子はとりとめのない話のつい

でに、キヨ子の日記の件を育三に語ってきかせた。(女同士)

例45; —— 二時二十分。

それらしい男性は一向に現れない。それとも、見過ごしたのか。どこか他へ行ったのか。

母は、今日でももう一度電話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そうなると、昨日誰が電話に出たのか、母にはすぐに分るだろう。

二時半になって、私は諦めた。目も疲れたし、そうそう粘っても、必ずここへやって來るとも限らないし……。 (早春物語)

例46; 昨日とは打って変わった女の態度に、清吉は一(ひ)と方ならず驚いたが、云われるままに獨り二階に待っていると、凡(およ) そ半時ばかり経って、女は洗い髪を兩肩へすべらせ、身じまいを整えて上って來た。(刺青)

5. 마치며

동사 중지형 「~して」가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같은 문장(文) 속에서 사용될 때는 동사 중지형 「~して」는 기본적으로는 중지형으로서의 기능과 동사로서의 술어성을 지니고 있으나, 동사 중지형 「~して」가 동사로서의 술어성을 상실해 가면서, 동사 중지형 「~して」는 문장(文) 속에서 수식어와 같이 문장의 확대요소로 사용된다. 이렇게 문장의 확대요소로서 쓰이던 동사 중지형인 「~して」라는 형태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가운데 그 형태가 굳어져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부사 또는 접속사로 품사까지 移行되어 버린다.

그러나, 동사 중지형 「~して」가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서로 다른 並合文 속에서 사용될 때는,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사 중지형 「~して」는 동사로서의 술어성을 완전히 지니고 있다. 이때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관계를 크게 나열의 경우와 시간적인 관계(繼起的·同時的)로 나눌 수 있는데, 나열의 경우, 계기적인 나열도 있을 것 같으나 實例에서는 찾을 수 없었고 同時的인 나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두 개의 사항을 나열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어떠한 順序가 있는 듯한데, 이것은 중지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문장(文)의 順序性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또, 동사 중지형 「~して」가 先行句節과 後續句節의 주어가 서로 다른 並合文 속에서 사용되더라도, 先行句節의 주어가 때(시간)를 나타낼 때는, 先行句節은 때(시간)를 나타내는 狀況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문장(文)은 주어가 하나고 술어가 하나인 單文이 된다.

【參考文獻】

- ・工藤 浩「絛法副詞の意味と機能」(1982) 国立國語研究所報告71『研究報告集3-』所收、国立國語研究所
- ・言語學研究會・構文論グループ「なかどめ 一動詞の第二なかどめのばあい」言語學研究會編(1989)『ことばの科學2』所收、むぎ書房 pp.12~47
- ・鈴木重幸(1972)『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p.166・pp.329~347
- ・高橋太郎 外(1994)『日本語の文法』、講義テキスト
- ・高橋太郎(1994)『動詞の研究』、むぎ書房 pp.89~101
- ・高橋太郎「動詞」(講義プリント)
- ・西尾 實 外『岩波 國語辭典』第四版、岩波書店 p.753
- ・仁田義雄(1991)『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
- ・仁田義雄(1995)「シテ形接續をめぐって」仁田義雄編『複文の研究 上』所收、くろしお出版 pp.87~126
- ・松村 明編『大辭林』、三省堂 p.1079
- ・宮島達夫(1994)『語彙論研究』、むぎ書房

【出典一覽】

- ・赤川次郎『早春物語』(角川文庫・四十三版)
- ・芥川龍之介「杜子春」(『蜘蛛の糸・杜子春』所收・新潮文庫・三十九刷)
- ・芥川龍之介「蜘蛛の糸」(『蜘蛛の糸・杜子春』所收・新潮文庫・三十九刷)
- ・石坂洋次郎「若い娘」(『女同士』所收・角川文庫・改版十五版)
- ・石坂洋次郎「女同士」(『女同士』所收・角川文庫・改版十五版)
- ・小川國夫「アポロンの島」(小田切進編『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所收・新潮文庫)
- ・川端康成「伊豆の踊子」(『伊豆の踊子・禽獸』所收・角川文庫・五十二版)
- ・北 社夫「岩尾根にて」(小田切進編『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所收・新潮文庫・2刷)
- ・椎名麟三「神の道化師」(小田切進編『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所收・新潮文庫)
- ・太宰 治「葉櫻と魔笛」(『新樹の言葉』所收・新潮文庫・九刷)
- ・谷崎潤一郎「刺青」(『刺青・秘密』所收・新潮文庫・三十九刷)
- ・宮澤賢治「風の又三郎」(『風の又三郎』所收・新潮文庫・二十二刷)
- ・宮澤賢治「注文の多い料理店」(『風の又三郎』所收・新潮文庫・二十二刷)
- ・向田邦子「幸福」(『隣りの女』所收・文春文庫・第一刷)
- ・向田邦子「隣りの女」(『隣りの女』所收・文春文庫・第一刷)
- ・安岡章太郎「ジングルベル」(『ガラスの靴・悪い仲間』所收・講談社文芸文庫・第一刷)
- ・安岡章太郎「劍舞」(小田切進編『日本の短編小説 昭和(下)』所收・新潮文庫)
- ・横光利一「春は馬車に乗って」(『機械・春は馬車に乗って』所收・新潮文庫・二十六刷)

要 旨

「～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が、先行句節と後續句節の主語が同じである文の中に使われる時、「～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には基本的に、なかどめとしての機能と動詞としての述語性が保たれているが、「～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がなかどめとしての機能と動詞としての述語性を失うにつれて、「～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は、文の中で修飾語のように文の擴大要素として働くようになるのである。なお、文の

擴大要素として使われていた動詞のなかどめでの「~して」という形が、人々によって使用されるうちに、この形が固まってしまうと、動詞のなかどめは動詞から副詞・接續詞などの他の品詞へ移行してしまうのである。

しかし、「~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が、先行句節と後續句節の主語が異なる、いわゆる並合文の中に使われる時は、先行句節と後續句節の主語が異なるがゆえに、「~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には、なかどめとしての機能と動詞としての述語性が完全に保たれている。この場合、先行句節と後續句節の關係を、並列の場合と時間的(繼起・同時)な關係とに分けて、また、並列も繼起的な並列と同時的な並列に分けて分析したのである。

ところで、文の中に二つの事柄を並べる時、そのうち、どちらでも先に並へていいようなものではなく、どちらかを先に述べなければならない文の順序性のようなもの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が、このことは動詞のなかどめの研究だけでは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ので、指摘することに止まる。

さらに、「~して」という動詞のなかどめが、先行句節と後續句節の主語が異なる並合文の中に使われても、先行句節の主語が時(時間)の場合は、先行句節は文の中で狀況節として機能するので、この場合の文は並合文ではなく、主語が一つで述語が一つの單文にな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先行句節と後續句節の主語及び主語の性格・動詞のなかどめ・
文の中での機能・文の構造

투 고 : 2004. 2. 28
1차 심사 : 2004. 3. 13
2차 심사 : 2004. 4. 3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3-229-8346
E-mail : immanuel@chongju.ac.kr